

## 일부 도시 주부들의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소비실태 조사

현 태 선\* · 김 완 수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Consumption of Imported and Organic Produce of Urban Housewives

Tai Sun Hyun,\* Wan Soo Kim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ABSTRACT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consumption of imported and organic produc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in Seoul, Taejon and Cheongju from February to March in 1995. The responses of 350 housewives were analyzed. Most of the subjects (96.8%) knew an increase of imported produce, and 86.3% thought that imported produce was not safe. Ninety-two percent of the subjects preferred domestic produce to imported produce. The reasons were 'for the support of domestic farming (36.7%)', 'hazardous chemicals in imported produce (25.0%)', 'good taste (24.1%)' and 'high quality of domestic produce (13.1%)'. Seventy-eight percent of the subjects had purchased imported produce. The reasons for purchase were 'cheap price (67.7%)', 'high quality (16.2%)', and 'good taste (5.4%)'. Imported produce were purchased in the following order : fruits such as banana, kiwi, orange and grapefruit, seasonings such as garlic and sesame, vegetables such as onion, braken and green onion, and beans and grains such as soybean, red bean, and barley. Most of the subjects (94.3%) had been informed on organic produce. Among these, 45.2% obtained the information by TV or radio. However, only 9.5%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always purchase organic produce. The major reason for purchase was 'low residual chemicals (64.6%)'. The reasons against purchase were 'inconvenience of purchase (42.3%)', 'high price (25.4%)', and 'disbelief of low residual chemicals (19.7%)'. Therefore, domestic produce should be good in quality and taste, and be safe without residual chemicals in order to compete with imported produce with cheap price. Informations on organic and imported produce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of organic produce should be improved for consumers' convenienc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2(1) : 74~85, 1997)

**KEY WORDS** : imported produce · organic produce · urban housewives.

---

\*교신저자 : 현태선,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전화) 0431) 61-2790, 팩스) 0431) 275-7618

## 서론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우리 나라의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 즉, 전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변화로는 영세 농가의 이농으로 도시인구가 팽창되어 도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국내 농업의 포기로 전통식품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도 파괴될 것이고,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독점화로 인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훈 1990 : 김종숙 1994).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수입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큰 문제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다(이서래 1994). 미국 등 많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장기간의 저장과 수송기간에서 생기는 벌레와 곰팡이 등을 막기 위해 수확 후에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일반 농약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김성훈 1990). 실제로 1990년 미국산 자몽과 사과주스에서 발암물질인 다미노자이드가 검출되었고, 미국산 냉동감자에서도 발암성 농약성분의 일종인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5a).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은 그 원료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빵은 100%가 미국산과 캐나다산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두부와 콩나물은 거의 90% 이상이 미국산과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참기름 제조회사들이 만든 참기름은 거의 중국산 참깨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김성훈 1990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5b).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려면 우선 검역과정이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관리법이 미흡하여 수입식품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1995a).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 측에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면 우리농산물, 특히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하영득 1990 : 한왕근 · 이귀주 1991 : 홍무기 1992). 최근 유기농산물 즉 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사용하여 재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생

활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자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은 수요도 적고 또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민도 적은 형편이다. 유기농법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시 농약에 노출되는 농부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생태계와 물의 오염도 막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Jolly 등 1989 : Wilkins, Hillers 1994). 그러나 유기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가격이 비싸므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Dittus 등 1993).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유기농법이 확산되어야 우리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소비자는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영양교육자들은 점차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소비실태 등에 관한 정보는 부천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을 뿐이며(이중희 등 1994),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태도, 기호도 등에 관한 정보는 서울지역 주부들의 무공해식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조사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남궁석 1994 : 남궁석 등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도시 즉 서울, 대전,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소비실태를 조사해 보고,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서울, 대전 및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1995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8개의 다른 지역에서 자모모임 또는 교회모임 등을 통해 배부하였고, 그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35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설문지 작성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 문헌(이중희 1994)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요인 10문항, 일반적인 식품의 구입실태 4문항,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소비실태 28문항,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처리방법

자료의 처리는 SAS를 이용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생활환경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입농산물의 소비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그 결과를 점수화하였다. 즉, 전혀 이용하지 않음을 1점, 거의 이용하지 않음을 2점, 가끔 이용한다는 3점, 자주 이용한다는 4점, 늘 이용한다는 5점으로 하고, 모든 사람의 점수를 더해 평균을 낸 식품별 평균 이용점수를 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요인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요인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30~39세가 50.0%로 가장 많았고, 20~29세는 14.0%, 40~49세는 18.9%, 50세 이상은 17.1%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6.9%, 고졸이 43.7%, 고졸 미만은 9.4%이었으며, 직업을 가진 주부는 31.1%로 직종은 전문직(43.0%), 상업(19.6%), 사무직(12.1%), 서비스직(12.1%), 노동직(3.7%) 등이었다. 월수입은 100~150만원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 미만이 24.6%, 200만원 이상이 22.9%, 100만원 미만이 15.7%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아파트가 47.7%, 단독주택이 32.6%, 연립주택이 16.9% 등이었고, 응답자의 78.0%가 가족 소유의 집을 갖고 있었다. 가족 수는 4명이 51.4%, 5명 이상은 26.3%, 3명 이하는 22.3% 등으로 평균 4.1명이었으며, 82.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는 서울 40.9%, 대전 38.3%, 청주 20.9%로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주부의 고향은 대도시가 36.3%, 중소도시 28.0%, 농촌 35.7% 등이었다.

### 2. 식품구입실태

Table 2는 생활환경요인에 따른 식품구입장소에 대한 결과이다.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41.1%의 주부가 가까운 슈퍼마켓, 23.1%가 재래시장, 14.9%가 동네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Group	N(%)
Age(years)	20 - 29	49( 14.0)
	30 - 39	175( 50.0)
	40 - 49	66( 18.9)
	≥50	60( 17.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3( 9.4)
	High school	153( 43.7)
	≥College	164( 46.9)
Employment status	Employed	109( 31.1)
	Not employed	241( 68.9)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55( 15.7)
	100 - 149	129( 36.9)
	150 - 199	86( 24.6)
	≥200	80( 22.9)
Type of residence	Apartment	167( 47.7)
	Independent house	114( 32.6)
	Tenement house	59( 16.9)
	Other	10( 2.9)
Ownership of a house	Own	273( 78.0)
	Rent	77( 22.0)
Family size(Persons)	≤3	78( 22.3)
	4	180( 51.4)
	≥5	92( 26.3)
Location	Seoul	143( 40.9)
	Taejon	134( 38.3)
	Cheongju	73( 20.9)
Total		350(100.0)

계, 14.0%가 백화점내 큰 슈퍼마켓을 이용한다고 답하였고, 유기농산물 구입처를 주로 이용하는 주부는 3.3%이었다. 서울시내 주부를 대상으로 한 1980년 조사에서는(유영상 1980) 70.2%의 주부가 시장에서, 그리고 26.3%가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하였고, 1990년의 조사에서는(유희정·송경희 1990) 42.5%의 주부가 시장에서, 그리고 37.7%가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하였다. 이들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시장의 이용이 매우 감소하였고 슈퍼마켓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부들이 시장이나 동네가게보다는 소량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위생적으로 유통, 보관되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요인에 따른  $\chi^2$  검증 결과 연령( $p<0.001$ ), 교육수준( $p<0.001$ ), 거주형태( $p<0.001$ ), 가족수( $p<0.05$ )에 따라 식품구입장소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슈퍼마켓을

**Table 2.** Place for food shopping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Variables	Group	Nearby supermarket	Traditional market	Local grocery	Department store	Other	Total	$\chi^2$ -test
Age	20 - 29	21(42.9)	12(24.5)	3( 6.1)	9(18.4)	4( 8.2)	49(100.0)	$\chi^2=34.93$ df = 12 p = 0.000
	30 - 39	89(50.9)	26(14.9)	26(14.9)	26(14.9)	8( 4.6)	175(100.0)	
	40 - 49	22(33.3)	21(31.8)	10(15.2)	5( 7.6)	8(12.1)	66(100.0)	
	≥50	12(20.0)	22(36.7)	13(21.7)	9(15.0)	4( 6.7)	60(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36.4)	10(30.3)	6(18.2)	0( 0.0)	5(15.2)	33(100.0)	$\chi^2=26.52$ df = 8 p = 0.001
	High school	53(34.6)	47(30.7)	26(17.0)	18(11.8)	9( 5.9)	153(100.0)	
	≥College	79(48.2)	24(14.6)	20(12.2)	31(18.9)	10( 6.1)	164(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43(39.5)	24(22.0)	16(14.7)	14(12.8)	12(11.0)	109(100.0)	$\chi^2=4.33$ df = 4 p = 0.363
	Not employed	101(41.9)	57(23.7)	36(14.9)	35(14.5)	12( 5.0)	241(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7(49.1)	11(20.0)	9(16.4)	3( 5.5)	5( 9.1)	55(100.0)	$\chi^2=14.31$ df = 12 p = 0.281
	100 - 149	52(40.3)	31(24.0)	17(13.2)	24(18.6)	5( 3.9)	129(100.0)	
	150 - 199	36(41.9)	19(22.1)	16(18.6)	7( 8.1)	8( 9.3)	86(100.0)	
	≥200	29(36.3)	20(25.0)	10(12.5)	15(18.8)	6( 7.5)	80(10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93(55.7)	17(10.2)	19(11.4)	29(17.4)	9( 5.4)	167(100.0)	$\chi^2=50.06$ df = 8 p = 0.000
	Independent house	31(27.2)	40(35.1)	17(14.9)	16(14.0)	10( 8.8)	114(100.0)	
	Tenement house · Other	20(29.0)	24(34.8)	16(23.2)	4( 5.8)	5( 7.3)	69(100.0)	
Family size	≤3	23(29.5)	23(29.5)	16(20.5)	8(10.3)	8(10.3)	78(100.0)	$\chi^2=16.67$ df = 8 p = 0.034
	4	89(49.4)	35(19.4)	24(13.3)	24(13.3)	8( 4.4)	180(100.0)	
	≥5	32(34.8)	23(25.0)	12(13.0)	17(18.5)	8( 8.7)	92(100.0)	
Total		144(41.1)	81(23.1)	52(14.9)	49(14.0)	24( 6.9)	350(100.0)	

주로 이용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슈퍼마켓보다는 시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고졸 미만의 집단에서는 백화점내 큰 슈퍼마켓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의 55.7%가 주로 가까운 슈퍼마켓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반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기타 등에 살고 있는 주부의 경우에는 각각 27.2%, 29.0%만이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그 대신 시장이나 동네가게를 이용하는 주부의 비율이 높아, 주거형태에 따라 식품구입장소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슈퍼마켓이 주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수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네가게, 4명인 경우에는 가까운 슈퍼마켓의 이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부의 직업 유무나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았지만(p<0.001, Table로 제시하지 않았음),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식품구입장소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반면 월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이유는 교육수준과는 달리 월수입은 직업의 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p<0.01)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구입 횟수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 2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이틀에 한 번은 29.7%, 주 1회는 15.7%, 매일은 8.9% 등이었다. 1980년 유(유영상

1980)의 연구결과는 이틀에 한번(38.4%), 매일(29.5%), 주 2회(23.7%), 주 1회(8.4%) 등의 순으로, 15년 전에 비해 식품구입 횟수가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생활환경요인에 따른  $\chi^2$  검증결과 연령(p<0.001) 또는 월수입(p<0.05)에 따라 식품구입 횟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 1회 식품을 구입하는 주부는 20대에서는 32.7%, 30대에서는 13.7%, 40대에서는 4.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0대 이상에서는 다시 20.0%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히 주 1회 식품을 구입하는 주부가 많았다.

식품구입은 대부분(94.6%)의 경우 주부가 직접하였고, 외식을 제외한 식품구입비로는 월 20~39만원이 47.1%, 20만원 미만이 25.7%, 40~59만원이 18.0%, 60만원 이상이 5.7% 등이었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주부는 3.4%이었다(Table 4). 식품구입비는 연령(p<0.001), 월수입(p<0.001), 자기 집의 소유 여부(p<0.005)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집을 소유한 가정에서 식품구입비가 높았다.

### 3.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에 관한 인식 및 태도

Table 5는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에 관한 주부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주부(96.8%)는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안다고 답하였으나 1.7%는 모른다, 1.4%는 관심없다고 답하였고,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86.8%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2.4%는 모르겠다, 0.9%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1993년 한국갤럽의

**Table 3.** Frequency of food shopping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Variables	Group	Frequency					Total	$\chi^2$ -test
		Daily	Every other day	Twice a week	Once a week	Other		
Age	20 - 29	3( 6.1)	12(24.5)	16(32.7)	16(32.7)	2( 4.1)	49(100.0)	$\chi^2=28.95$ df =12 p =0.004
	30 - 39	19(10.9)	55(31.4)	72(41.1)	24(13.7)	5( 2.9)	175(100.0)	
	40 - 49	5( 7.6)	24(36.4)	33(50.0)	3( 4.6)	1( 1.5)	66(100.0)	
	≥ 50	4( 6.7)	13(21.7)	25(41.7)	12(20.0)	6(10.0)	60(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 9.1)	10(30.3)	13(39.4)	4(12.1)	3( 9.1)	33(100.0)	$\chi^2=8.15$ df =8 p =0.419
	High school	11( 7.2)	52(34.0)	66(43.1)	19(12.4)	5( 3.3)	153(100.0)	
	≥College	17(10.4)	42(25.6)	67(40.9)	32(19.5)	6( 3.7)	164(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10( 9.2)	26(23.9)	47(43.1)	24(22.0)	2( 1.8)	109(100.0)	$\chi^2=7.78$ df =4 p =0.100
	Not employed	21( 8.7)	78(32.4)	99(41.1)	31(12.9)	12( 5.0)	241(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4( 7.3)	20(36.4)	20(36.4)	9(16.4)	2( 3.6)	55(100.0)	$\chi^2=21.51$ df =12 p =0.043
	100 - 149	8( 6.2)	39(30.2)	62(48.1)	14(10.9)	6( 4.7)	129(100.0)	
	150 - 199	11(12.8)	25(29.1)	34(39.5)	10(11.6)	6( 7.0)	86(100.0)	
	≥200	8(10.0)	20(25.0)	30(37.5)	22(27.5)	0( 0.0)	80(10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19(11.4)	56(33.5)	62(37.1)	26(15.6)	4( 2.4)	167(100.0)	$\chi^2=12.76$ df =8 p =0.120
	Independent house	9( 7.9)	25(21.9)	51(44.7)	22(19.3)	7( 6.1)	114(100.0)	
	Tenement house · Other	3( 4.4)	23(33.3)	33(47.8)	7(10.1)	3( 4.4)	69(100.0)	
Family size	≤ 3	8(10.3)	11(14.1)	37(47.4)	16(20.5)	6( 7.7)	78(100.0)	$\chi^2=14.35$ df =8 p =0.073
	4	16( 8.9)	62(34.4)	71(39.4)	26(14.4)	5( 2.8)	180(100.0)	
	≥ 5	7( 7.6)	31(33.7)	38(41.3)	13(14.1)	3( 3.3)	92(100.0)	
Total		31( 8.9)	104(29.5)	146(41.7)	55(15.7)	14( 4.0)	350(100.0)	

**Table 4.** Monthly expenditure on food shopping(excluding eating-out cost)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Variables	Group	Monthly expenditure(10,000 Won)					Total	$\chi^2$ -test
		<20	20 - 39	40 - 59	≥60	Do not know		
Age	20 - 29	18(36.7)	23(46.9)	5(10.2)	2( 4.1)	1(2.0)	49(100.0)	$\chi^2=33.10$ df =12 p =0.001
	30 - 39	40(22.9)	99(56.6)	26(14.9)	5( 2.9)	5(2.9)	175(100.0)	
	40 - 49	17(25.8)	22(33.3)	15(22.7)	10(15.2)	2(3.0)	66(100.0)	
	≥50	15(25.0)	21(35.0)	17(28.3)	3( 5.0)	4(6.7)	60(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3(39.4)	13(39.4)	2( 6.1)	2( 6.1)	3(9.1)	33(100.0)	$\chi^2=12.80$ df =8 p =0.119
	High school	41(26.8)	72(47.1)	25(16.3)	11( 7.2)	4(2.6)	153(100.0)	
	≥College	36(22.0)	80(48.8)	36(22.0)	7( 4.3)	5(3.1)	164(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30(27.5)	49(45.0)	20(18.4)	6( 5.5)	4(3.7)	109(100.0)	$\chi^2=0.412$ df =4 p =0.981
	Not employed	60(24.9)	116(48.1)	43(17.8)	14( 5.8)	8(3.3)	241(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9(52.7)	20(36.4)	2( 3.6)	2( 3.6)	2(3.6)	55(100.0)	$\chi^2=45.75$ df =12 p =0.000
	100 - 149	36(27.9)	68(52.7)	19(14.7)	4( 3.1)	2(1.6)	129(100.0)	
	150 - 199	15(17.4)	40(46.5)	22(25.6)	6( 7.0)	3(3.5)	86(100.0)	
	≥200	10(12.5)	37(46.3)	20(25.0)	8(10.0)	5(6.3)	80(10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41(24.6)	83(49.7)	31(18.6)	8( 4.8)	4(2.4)	167(100.0)	$\chi^2=4.57$ df =8 p =0.802
	Independent house	29(25.4)	49(43.0)	23(20.2)	7( 6.1)	6(5.3)	114(100.0)	
	Tenement house · Other	20(29.0)	33(47.8)	9(13.0)	5( 7.3)	2(2.9)	69(100.0)	
Ownership of a house	Own	61(22.3)	131(48.0)	57(20.9)	17( 6.2)	7(2.6)	273(100.0)	$\chi^2=14.66$ df =4 p =0.005
	Rent	29(37.7)	34(44.2)	6( 7.8)	3( 3.9)	5(6.5)	77(100.0)	
Family size	≤ 3	26(33.3)	34(43.6)	12(15.4)	2( 2.6)	4(5.1)	78(100.0)	$\chi^2=12.76$ df =8 p =0.120
	4	42(23.3)	85(47.2)	39(21.7)	8( 4.4)	6(3.3)	180(100.0)	
	≥ 5	22(23.9)	46(50.0)	12(13.0)	10(10.9)	2(2.2)	92(100.0)	
Total		90(25.7)	165(47.1)	63(18.0)	20( 5.7)	12(3.4)	350(100.0)	

조사(백남훈 1994)에 의하면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29.8%,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8.0%로 전체 응답자의 77.8%가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응답은 5.4%로 이 결과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1993년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과 수입농산물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하는

질문에 91.7%의 주부는 국내산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6.0%는 상관하지 않는다, 1.1%는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수입농산물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36.6%가 농촌을 살려야 하므로, 25.0%가 수입농산물은 유해물질이 많으므로, 24.1%가 맛이 좋으므로, 13.1%가 품질이 좋으므로 라고 응답하였다. Table 6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생활환경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5.** Perception and attitude o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e

Perception and attitude statements	Answers	N(%)
Have you heard of the increase of imported produce?	Yes	338( 96.8)
	No	6( 1.7)
	Do not care	5( 1.4)
	Total	349(100.0)
Do you think that imported produce is safe?	Yes	3( 0.9)
	No	302( 86.8)
	Do not know	43( 12.4)
	Total	348(100.0)
Which do you prefer, domestic or imported produce?	Domestic produce	320( 91.7)
	Imported produce	4( 1.1)
	Do not care	21( 6.0)
	Do not know	4( 1.1)
	Total	349(100.0)
What is the reason for your preference of domestic produce?	For the support of domestic farming	117( 36.6)
	Hazardous chemicals in imported produce	80( 25.0)
	Good taste	77( 24.1)
	High quality	42( 13.1)
	Other	4( 1.3)
	Total	320(100.0)
Will you buy imported rice if it tastes similar to, but is cheaper than domestic rice?	Yes	76( 21.8)
	No	217( 62.2)
	Do not know	56( 16.0)
	Total	349(100.0)

**Table 6.** Reasons for preference of domestic produ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Variables	Group	For the support of domestic farming	Hazardous chemicals in imported produce	Good taste	High quality	Other	Total	$\chi^2$ -test
Age	20 - 29	11(25.0)	15(34.1)	9(20.5)	8(18.2)	1(2.3)	44(100.0)	$\chi^2 = 25.76$ df = 12 p = 0.012
	30 - 39	59(36.4)	53(32.7)	34(21.0)	15( 9.3)	1(0.6)	162(100.0)	
	40 - 49	21(36.8)	6(10.5)	19(33.3)	10(17.5)	1(1.8)	57(100.0)	
	≥50	26(45.6)	6(10.5)	15(26.3)	9(15.8)	1(1.8)	57(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6(50.0)	1( 3.1)	12(37.5)	3( 9.4)	4(1.3)	32(100.0)	$\chi^2 = 24.27$ df = 8 p = 0.002
	High school	51(36.7)	30(21.6)	33(23.7)	25(18.0)	0(0.0)	139(100.0)	
	≥College	50(33.6)	49(32.9)	32(21.5)	14( 9.4)	0(0.0)	149(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2(42.3)	10(19.2)	16(30.8)	4( 7.7)	0(0.0)	52(100.0)	$\chi^2 = 13.63$ df = 12 p = 0.325
	100 - 149	42(36.5)	28(24.4)	26(22.6)	18(15.7)	1(0.9)	115(100.0)	
	150 - 199	27(33.8)	24(30.0)	21(26.3)	8(10.0)	0(0.0)	80(100.0)	
	≥200	26(35.6)	18(24.7)	14(19.2)	12(16.4)	3(4.1)	73(100.0)	
Total		117(36.6)	80(25.0)	77(24.1)	42(13.1)	4(1.3)	320(100.0)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의 일부이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 ( $p < 0.05$ ) 또는 교육수준( $p < 0.01$ )에 따라 국내산을 선호하는 이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하므로 라고 답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농산물에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국내산 쌀과 맛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외국쌀이 수입된다면 이용하겠다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62.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21.8%는 이용하겠다, 16.0%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Table 7은 외국쌀의 수입시 이용여부가 생활환경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의 일부이다.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쌀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한 경향이 있었다.

Table 8은 수입농산물의 구입행동에 관한 결과이다.

식품구입시 66.8%의 주부는 수입농산물인지 국내산인지를 늘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30.4%는 가끔 확인한다, 2.9%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연령 ( $p < 0.001$ ), 교육수준( $p < 0.05$ ), 월수입( $p < 0.01$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9). 즉, 연령이 높을수록 늘 확인한다는 답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끔 확인한다 또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이 많았다. 교육수준과 월수입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이 많았고, 특히 고졸집단과 월수입 150~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늘 확인한다는 답이 많았다.

수입농산물의 구입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78.4%는 수입농산물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3.5%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Table 8). 1993년 국민식생활 의식구조 조사보고서(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 1993)에 의하면 도시거주자 1681명중 67.1%가 수입식품을 구입한

**Table 7.** Opinion on the purchase of imported ri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Variables	Group	Will buy	Will not buy	Do not know	Total	$\chi^2$ -test
Age	20 - 29	11(22.5)	30(61.2)	8(16.3)	49(100.0)	$\chi^2 = 1.01$ df = 6 p = 0.985
	30 - 39	38(21.7)	111(63.4)	26(14.9)	175(100.0)	
	40 - 49	15(23.1)	40(61.5)	10(15.4)	65(100.0)	
	≥ 50	12(20.0)	36(60.0)	12(20.0)	60(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18.8)	21(65.6)	5(15.6)	32(100.0)	$\chi^2 = 8.03$ df = 4 p = 0.090
	High school	26(17.0)	95(62.1)	32(20.9)	153(100.0)	
	≥ College	44(26.8)	101(61.6)	19(11.6)	164(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1(20.0)	38(69.1)	6(10.9)	55(100.0)	$\chi^2 = 5.26$ df = 6 p = 0.510
	100 - 149	34(26.4)	72(55.8)	23(17.8)	129(100.0)	
	150 - 199	14(16.5)	56(65.9)	15(17.7)	85(100.0)	
	≥ 200	17(21.3)	51(63.8)	12(15.0)	80(100.0)	
Total		76(21.8)	217(62.2)	56(16.0)	349(100.0)	

**Table 8.** Shopping behavior of imported produce

Behavior statements	Answers	N	(%)
When you purchase produce, do you find out whether the produce is domestic or imported?	Always	233	(66.8)
	Sometimes	106	(30.4)
	Never	10	(2.9)
	Total	349	(100.0)
Have you ever purchased imported produce?	Yes	272	(78.4)
	No	63	(18.2)
	Do not know	12	(3.5)
	Total	347	(100.0)
What is the reason for purchasing imported produce?	Cheap price	176	(67.7)
	High quality	42	(16.2)
	Good taste	14	(5.4)
	Other	28	(10.8)
	Total	260	(100.0)
When you purchase imported produce, do you find out the origin?	Always	147	(54.0)
	Sometimes	99	(36.4)
	Never	26	(9.6)
	Total	272	(100.0)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수입식품 중에서도 농산물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주부가 78.4%이므로 수입식품의 이용이 훨씬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 모르는 중에 구입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입농산물의 구입경험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수입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67.7%가 가격이 저렴하므로라고 하였고, 16.2%는 품질이 좋으므로, 5.4%는 맛이 좋으므로라고 하여 대부분 저렴한 가격때문에 수입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수입농산물의 구입시 54.0%는 원산지를 늘 확인하며, 36.4%는 가끔, 그리고 9.6%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Table 8). 그런데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낙후된 기술, 품질관리의 미흡 등으로 위생적으로나 품질면

에서 훨씬 좋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김정옥 · 이규한 1994). 이것은 일차적으로 수입농산물의 검역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입축산물에서와 같이 수입농산물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 수입농산물의 이용실태

Table 10은 대표적 수입농산물의 이용실태에 관한 결과이다. 수입농산물을 종류별로 보면 바나나, 키위, 오렌지, 자몽 등 과일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다음으로 마늘, 깨 등의 양념류와 양파, 고사리 등의 채소류가 비

**Table 9.** Frequency of finding out whether the produce is domestic or imported on purchas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Always	Sometimes	Never	Total	$\chi^2$ -test
Age	20 - 29	22(44.9)	23(46.9)	4(8.2)	49(100.0)	$\chi^2 = 21.50$ df = 6 p = 0.001
	30 - 39	120(68.6)	50(28.6)	5(2.9)	175(100.0)	
	40 - 49	42(63.6)	23(34.9)	1(1.5)	66(100.0)	
	≥50	49(83.1)	10(17.0)	0(0.0)	59(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1(63.6)	10(30.3)	2(6.1)	33(100.0)	$\chi^2 = 10.16$ df = 4 p = 0.038
	High school	111(73.0)	35(23.0)	6(4.0)	152(100.0)	
	≥College	101(61.6)	61(37.2)	2(1.2)	164(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34(61.8)	18(32.7)	3(5.5)	55(100.0)	$\chi^2 = 16.92$ df = 6 p = 0.010
	100 - 149	78(60.9)	48(37.5)	2(1.6)	128(100.0)	
	150 - 199	71(82.6)	12(14.0)	3(3.5)	86(100.0)	
	≥200	50(62.5)	28(25.0)	2(2.5)	80(100.0)	
Total		233(66.8)	106(30.4)	10(2.9)	349(100.0)	

**Table 10.** Consumption pattern of selected items of imported produce

Food items	1	2	3	4	5	Do not know	Total	Consumption score <sup>1)</sup>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Always			
Banana	21( 6.4)	32( 9.7)	214(64.8)	49(14.8)	11(3.3)	3(0.9)	330(100.0)	2.99±0.81
Kiwi	65(20.1)	57(17.6)	167(51.5)	20( 6.2)	8( 2.5)	7(2.2)	324(100.0)	2.52±0.97
Orange	106(33.9)	72(23.0)	107(34.2)	13( 4.2)	7( 2.2)	8(2.6)	313(100.0)	2.16±1.03
Grape fruit	116(36.9)	77(24.5)	98(31.2)	13( 4.1)	6( 1.9)	4(1.3)	314(100.0)	2.08±1.01
Garlic	150(47.2)	57(17.9)	74(23.3)	6( 1.9)	25( 7.9)	6(1.9)	318(100.0)	2.04±1.23
Onion	140(44.2)	69(21.8)	74(23.3)	19( 6.0)	8( 2.5)	7(2.2)	317(100.0)	1.99±1.08
Braken(Gosari)	131(40.9)	61(19.1)	105(32.8)	7( 2.2)	2( 0.6)	14(4.4)	320(100.0)	1.98±0.96
Sesame	155(48.9)	61(19.2)	61(19.2)	12( 3.8)	21( 6.6)	7(2.2)	317(100.0)	1.98±1.21
Green onion	190(61.3)	66(21.3)	18( 5.8)	6( 1.9)	19( 6.1)	11(3.5)	310(100.0)	1.66±1.11
Potato	189(59.8)	64(20.3)	31( 9.8)	18( 5.7)	3( 0.9)	11(3.5)	316(100.0)	1.63±0.95
Doraji	178(58.2)	60(19.6)	47(15.4)	4( 1.3)	-	17(5.6)	306(100.0)	1.57±0.81
Carrot	199(63.8)	61(19.6)	20( 6.4)	18( 5.8)	2( 0.6)	12(3.8)	312(100.0)	1.54±0.91
Red pepper powder	217(70.5)	57(18.5)	7( 2.3)	3( 1.0)	21( 6.8)	3(1.0)	308(100.0)	1.54±1.09
Soybean	205(64.3)	74(23.2)	20( 6.3)	5( 1.6)	10( 3.1)	5(1.6)	319(100.0)	1.53±0.93
Barley	221(70.6)	63(20.1)	9( 2.9)	9( 2.9)	5( 1.6)	6(1.9)	313(100.0)	1.42±0.82
Red bean	210(67.3)	72(23.1)	21( 6.7)	2( 0.6)	-	7(2.2)	312(100.0)	1.39±0.65

1) The answers were coded so that 'Never'=1, 'Rarely'=2, 'Sometimes'=3, 'Often'=4, 'Always'=5. The scores were summed and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to produce a consumption score(mean±S.D.)



**Table 11.** Knowledge of organic produ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Variables	Group	Heard	Never heard	Total	$\chi^2$ -test
Age	20 - 29	44(89.8)	5(10.2)	49(100.0)	$\chi^2 = 3.27$ df = 3 p = 0.352
	30 - 39	168(96.0)	7( 4.0)	175(100.0)	
	40 - 49	61(92.4)	5( 7.6)	66(100.0)	
	≥50	57(95.0)	3( 5.0)	60(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5(75.8)	8(24.2)	33(100.0)	$\chi^2 = 24.36$ df = 2 p = 0.000
	High school	145(94.8)	8( 5.2)	153(100.0)	
	≥College	160(97.6)	4( 2.4)	164(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100(91.7)	9( 8.3)	109(100.0)	$\chi^2 = 1.90$ df = 1 p = 0.168
	Not employed	230(95.4)	11( 4.6)	241(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47(85.5)	8(14.6)	55(100.0)	$\chi^2 = 10.31$ df = 3 p = 0.016
	100 - 149	122(94.6)	7( 5.4)	129(100.0)	
	150 - 199	83(96.5)	3( 3.5)	86(100.0)	
	≥200	78(97.5)	2( 2.5)	80(10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159(95.2)	8( 4.8)	167(100.0)	$\chi^2 = 9.16$ df = 2 p = 0.010
	Independent house	111(97.4)	3( 2.6)	114(100.0)	
	Tenement house · Other	60(87.0)	9(13.0)	69(100.0)	
Ownership of a house	Own	262(96.0)	11( 4.0)	273(100.0)	$\chi^2 = 6.54$ df = 1 p = 0.011
	Rent	68(88.3)	9(11.7)	77(100.0)	
Total		330(94.3)	20( 5.7)	350(100.0)	

숫하게 이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콩, 보리, 팥 등의 잡곡류 순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일류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과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과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김용자 1992). 다른 수입식품과의 비교를 위해 수입축산물과 수입생선류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하였는데 쇠고기의 이용점수는 2.54점, 돼지고기는 1.58점, 수입생선류는 1.86점이었다(Table로 제시하지 않았음).

### 5. 유기농산물에 관한 인식 및 구입행동

조사대상자의 94.3%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교육수준(p<0.001), 월수입(p<0.05), 거주형태(p<0.01), 자기 집의 소유 여부(p<0.05)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11). 교육수준이나 월수입이 높은 경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경우, 그리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유기농산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45.2%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29.7%는 주위사람들로부터, 13.0%는 신문, 8.5%는 책이나 잡지를 통해 들어보았다고 답하여(Table 12) 다른 영양지식을 얻는 급원과 비슷하게 주부들에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궁석 1994; 유희정·송경희 1990; 장현숙 1988; 정순자·김화영 1985; 하태열 등 1995).

**Table 12.** Sources of information on organic produce

Sources	N(%)
TV/Radio	149( 45.2)
Relatives/Friends	98( 29.7)
Newspapers	43( 13.0)
Books/Magazines	28( 8.5)
Other	12( 3.6)
Total	330(100.0)

유기농산물의 구입 행동에 관한 결과는 Table 13에 있다. 유기농산물의 구입은 9.5%가 늘 한다, 70.3%는 가끔 한다, 20.2%는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64.6%가 농약이 적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므로라고 하였고, 20.8%는 맛과 품질이 좋으므로, 13.9%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p<0.01), 주부의 직업 유무(p<0.05), 월수입(p<0.01), 자기 집의 소유 여부(p<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14).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직업이 없거나 자기 집이 있는 집단에서 농약이 적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므로라고 답한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직업이 있거나 자기 집이 없는 집단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답하여 대조를 보였다. 유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42.3%가 구입이 불편하므로라고 하였으며, 25.4%는 가격이 비싸므로, 19.7%는 저농약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라고 대답

하였다(Table 13). 가격보다는 구입의 불편함이 유기농 산물의 소비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무공해식품에 대한 남궁 등의 연구(남궁석 등 1994)에서도 무공해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딸기 등의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할 때 97.7%의 주부는 농약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해결방법으로는 80.4%가 되도록 깨끗이 씻는다. 9.7%는 섭취횟수를 줄인다. 그리고 7.6%의 주부는 저농약식품을 구입한다고 답하였다(Table로 제시하지 않았음).

Table 15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재배한 일반 농산물과 농약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재배한 저농약 농산물이 있을 경우, 저농약 농산물의 가격이 20% 정도 비싸다면 다음의 식품을 구입하겠는가 하는 질문의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딸기, 포도 등 씻기 어렵거나 과피가 입에 접촉되는 과일류는 93.1%의 주부가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잡곡류나 감자, 고구마 등은 각각 78.3%, 75.9%로 구입하겠다는 주부의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샐러드용 채소부터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늘려가면서 홍보를 통해

**Table 13.** Shopping behavior of organic produce

Behavior statements	Answers	N(%)
Do you purchase organic produce?	Always	33( 9.5)
	Sometimes	244( 70.3)
	Never	70( 20.2)
	Total	347(100.0)
What is the reason for purchasing organic produce?	Low residual chemicals	177( 64.6)
	Good taste and quality	57( 20.8)
	Environmental concern	38( 13.9)
	Other	2( 0.7)
	Total	274(100.0)
What is the reason for not purchasing organic produce?	Inconvenience of purchase	60( 42.3)
	High price	36( 25.4)
	Disbelief of low residual chemicals	28( 19.7)
	No idea of organic produce	10( 7.0)
	Other	8( 5.6)
	Total	142(100.0)

**Table 14.** Reasons for purchasing organic produ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Low residual chemicals	Good taste and quality	Environmental concern	Other	Total	$\chi^2$ -test
Age	20 - 29	24(72.7)	6(18.2)	2( 6.1)	1(3.0)	33(100.0)	$\chi^2 = 11.37$ df = 9 p = 0.252
	30 - 39	86(66.7)	29(22.5)	13(10.1)	1(0.8)	129(100.0)	
	40 - 49	37(62.7)	10(17.0)	12(20.3)	0(0.0)	59(100.0)	
	≥ 50	30(56.6)	12(22.6)	11(20.8)	0(0.0)	53(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1(40.7)	5(18.5)	11(40.7)	0(0.0)	27(100.0)	$\chi^2 = 21.18$ df = 6 p = 0.002
	High school	81(65.9)	27(22.0)	15(12.2)	0(0.0)	123(100.0)	
	≥College	85(68.6)	25(20.2)	12( 9.7)	2(1.6)	124(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47(55.3)	18(21.2)	19(22.4)	1(1.2)	85(100.0)	$\chi^2 = 8.39$ df = 3 p = 0.039
	Not employed	130(68.8)	39(20.6)	19(10.1)	1(0.5)	189(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7(41.5)	10(24.4)	13(31.7)	1(2.4)	41(100.0)	$\chi^2 = 22.09$ df = 9 p = 0.009
	100 - 149	63(63.6)	21(21.2)	14(14.1)	1(1.0)	99(100.0)	
	150 - 199	45(68.2)	13(19.7)	8(12.1)	0(0.0)	66(100.0)	
	≥200	52(76.5)	13(19.1)	3( 4.4)	0(0.0)	68(10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84(65.6)	30(23.4)	13(10.2)	1(0.8)	128(100.0)	$\chi^2 = 5.12$ df = 6 p = 0.528
	Independent house	57(60.6)	20(21.3)	16(17.0)	1(1.1)	94(100.0)	
	Tenement house · Other	36(69.2)	7(13.5)	9(17.3)	0(0.0)	52(100.0)	
Ownership of a house	Own	148(67.0)	47(21.3)	26(11.8)	0(0.0)	221(100.0)	$\chi^2 = 13.10$ df = 3 p = 0.004
	Rent	29(54.7)	10(18.9)	12(22.6)	2(3.8)	53(100.0)	
Total		177(64.6)	57(20.8)	38(13.9)	2(0.7)	274(100.0)	

**Table 15.** Opinion on the purchase of produce with low residual chemicals at 20% higher price

N(%)

Food categories	Will buy	Will not buy	Do not know	Total
Fruits which cannot be peeled off(strawberry, grape, etc.)	308(93.1)	15(4.5)	8(2.4)	331(100.0)
General vegetables(soybean sprout, Korean cabbage, etc.)	297(90.5)	20(6.1)	11(3.4)	328(100.0)
Rice	284(85.8)	27(8.2)	20(6.0)	331(100.0)
Vegetables for salad(lettuce, cabbage, etc.)	276(84.9)	34(10.5)	15(4.6)	325(100.0)
Fruits which can be peeled off(apple, pear, etc.)	276(84.1)	34(10.4)	18(5.5)	328(100.0)
Seasonings(garlic, sesame, red pepper powder, etc.)	263(80.7)	36(11.0)	27(8.3)	326(100.0)
Vegetables for fresh juice(kale, etc.)	255(80.4)	39(12.3)	23(7.3)	317(100.0)
Miscellaneous grains(barley, beans, etc.)	252(78.3)	40(12.4)	30(9.3)	322(100.0)
Potato, sweet potato	240(75.9)	43(13.6)	33(10.4)	316(100.0)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채소의 경우보다 녹즙용 채소의 구입욕구가 낮은 이유는 녹즙용 채소를 소비하지 않는 주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부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입욕구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실제 구입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가격보다는 구입이 불편하므로라고 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유통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하되, 상설매장도 준비되어 있어서 유통구조가 소비자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농약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주부도 19.7%나 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주려면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선정하고 품질보증제도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유기농산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5c). 공신력을 가진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및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 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부들이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6.8%는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안다고 답하였고, 86.8%는 수입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91.7%의 주부가 수입농산물보다 국내산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선호하는 이유는 36.6%가 농촌을 살려야 하므로, 25.0%가 수입농산물은 유해물질이 많으므로, 24.1%가 맛이 좋으므로, 13.1%가 품질

이 좋으므로라고 응답하였다.

2) 응답자의 78.4%는 수입농산물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수입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67.7%가 가격이 저렴하므로라고 하였고, 16.2%는 품질이 좋으므로, 5.4%는 맛이 좋으므로라고 하여 대부분 저렴한 가격때문에 수입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농산물 중에서는 바나나, 키위, 오렌지, 자몽 등의 과일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마늘, 깨 등의 양념류, 고사리, 양파 등의 채소류, 보리, 팥 등의 잡곡류 순으로 이용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94.3%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중 45.2%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하였다. 유기농산물을 늘 구입한다고 대답한 주부는 9.6%이었는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64.6%가 농약이 적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므로라고 하였다.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42.3%가 구입이 불편하므로, 25.4%는 가격이 비싸므로, 19.7%는 저농약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라고 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언을 하면, 우리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잔류농약이 적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손쉽게 제공될 수 있는 유통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마련되어 진다면, 유기농산물의 소비는 증가되고 소비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첨가하여, 그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많은 주부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철저한 검역뿐 아니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책임 있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용자(1992) :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소비자 자세. *농촌생활과학* 춘계호 28-33
- 김성훈(1990) : 수입식품 이것이 문제다.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 김정옥 · 이규한(1994) : 수입식품의 품질조사연구(1)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3 : 328-332
- 김종숙(1994) : UR이 농촌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교 30주년 기념 전시회 및 심포지움 발표 논문 초록, 성심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남궁석(1994) : 무공해식품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문화학회지* 9 : 379-394
- 남궁석 · 이혜임 · 이정윤 · 김만수(1994) : 주부의 무공해식품에 대한 인식, 관심 및 소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문화학회지* 9 : 289-301
- 백남훈(1994) :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비자의 자세. *농촌생활과학* 춘계호 14-16
- 유영성(1980) : 식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 : 53-66
- 유희정 · 송경희(1995) : 서울시내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 및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 47-55
- 이서래(1994) :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농촌생활과학* 춘계호 17-24
- 이중희 · 오명숙 · 손숙미(1994) :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품질특성비교와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개교 30주년 기념 전시회 및 심포지움 발표논문 초록, 성심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1993) : 국민식생활 의식구조 조사보고서. *식생활* 3 : 101-104
- 장현숙(1988) : 도시 및 농촌 거주 주부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 : 15-30, 1988
- 정순자 · 김화영(1985) :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 : 101-108
- 하영득(1990) : 잔류농약과 식품안전성.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9 : 538-546, 1990
- 하태연 · 김혜영 · 김영진(1995) : 전국 중학생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4 : 10-18
-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시대* 11 : 90-93
- 한국소비자보호원(1995a) : 식탁위의 독, 잔류농약을 없애자. *소비자시대* 7 : 28-31
- 한국소비자보호원(1995b) : 유명참기름 거의 중국산 깨 이용. *소비자시대* 11 : 100
- 한국소비자보호원(1995c) :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 시급하다. *소비자시대* 1 : 92-95
- 한왕근 · 이키주(1991) :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7 : 23-34
- 홍무기(1992) : 우리 농산물의 농약잔류 실태 및 안전성 평가. *식품과학과 산업* 25 : 2-12
- Dittus KL, Hillers VN, Beerman KA(1993) : Attitudes and behaviors about pesticide residues, susceptibility to cancer, and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J Nutr Edu* 25 : 245-250
- Jolly DA, Schutz HG, Diaz-Knauf KV, Johal J(1989) : Organic food : Consumer attitudes and use. *Food Technol* 43 : 60-66
- Wilkins JL, Hillers VN(1994) : Influences of pesticide residue and environmental concerns on organic food preference among food cooperative members and non-members in Washington state. *J Nutr Edu* 26 : 26-33